



(Ⅲ) 교회의 본질과 사명

□ 제 1 회 □

L: 이원에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현대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문제시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일 자체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종래의 생각에 체감도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회의 근본 의의와 그 발전이 무엇인지 같은 문제는 꼭 방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우리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 보아야 하겠읍니다.

K: 애당초부터 이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지는 일로서 이 교회라는 말을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church'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에클레시아' (ekklesia)라고 한 말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라는 회랍어가 영어나 독일어 같은 로마 언어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의 빌어온 말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어나 영어에 있어서는 Kirche 나 Church 나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게르만 민족이 아리안(Arian) 기독교인과 혼합되면서부터 아리안 민족이 쓰던 회랍어 '큐리아콘' (Kyriakon)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안 민족들이 쓴 이 '큐리아콘'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 속한 자' (belonging to Lor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던 '주'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큐리오스’(Kyrios)의 형용사인 큐리아코스(Kyriakos)는 또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뜻으로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랍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큐리아코스라는 형용사는 늘 주의 성찬, 주의 날, 주의 집이라는 비인격적인 것애다가 적용시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church’라는 말도 큐리아코스 즉 ‘주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라는 말이 어떤 구체적인 크리스천을 의미하기보다도 제도와 같이 고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으레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L: 한 마디로 해서 성서에서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의 진의물이 ekklesia라는 말을 번역해 오는 중에 역사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제도나 건물이나 조직체로서만 해석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의 뜻은 한대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데에 교회의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에 나타난 큰 특징은, 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장벽을 없이 했다는 것은 현대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고로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없이 하고 유대인이나 회랍인이나 주인이나 종의 차별, 그리고 할례자나 무할례자와 같은 종교적 차별까지 없이 하는 혁명을 이룩했었다는 데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제사를 지내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기

3. 교회의 본질과 사명

특된 것과 같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유대교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과 구원을 믿는 신앙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데 교회 예배와 유대교의 제사의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와 성격이 역사적인 발전과 함께 점차로 바뀌어져서, 교회를 어떤 종교적 제도나 조직체, 그리고 어떤 도그마나 신조를 지키는 사람들의 집합체로만 보게 되었는데, 이런 의면적인 결과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붕괴되거나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L: 현실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늘 듣는 것은 교회의 분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요, 이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교회가 여러 지체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교파로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 왔으며, 우리 자신들도 이를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회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 같은 교파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을 봅니다. 이러한 분열은 역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으냐는 것은 별문제로 치더라도, 분열의 사태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속히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K: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데는 오늘날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려면 통일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운동이 붕괴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분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교회의 정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열은 붕괴되는 과정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 했지만, 분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또 분열을 건설적인 면, 발전적인 면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열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분열을 파괴적으로 하느냐, 건설적인 면으로 돌리느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교회사도 한 마디로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역사가 또 유럽에 있어서의 다원 사회를 형성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의 교파 구조의 다양성이 다원적인 사회 발전과 정치 구조에 영향을 준 바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분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옳은 방향으로 모색하여야만 우리 사회의 다원적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L: 문제는 하나가 된다는 그 '하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란 말은 단일(單一)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유기적인 통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일 기구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켜 가면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분열을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유기적인 통일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처럼 한 계통 아래에다가 모든 것을 집결시키는 단일체는 아닐 것입니다.

K: 그 점에서 역시 우리는 교회의 통일을 모색하는 데 혼란을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기구나 제도의 통일성보다 한 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일치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 제 2 회 □

L: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과연 교

3. 교회의 본질과 사명

회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과 무슨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문제가 되어 있지요. 더우기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K: 사실 요즘 같은 한국의 실정에서는 교회의 성격과 교회 생활의 의의를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의의에 앞서서 성서적인 근거를 먼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L: 신약에서는 대개 교회를 네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집(the Household of God)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는 자기 제자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막 3:35).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와 같은 가족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둘째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22 절을 보면 유대인의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교회에서 산 돌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골 1:18). 이 비유는 교회가 하나의 산 유기체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겠지요. 특히 이 비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지체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적인 유기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겠지요. 다음 네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교회의 성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한다면, 교회는 하나의 기구와 구조를 가진 조적체이며, 그것은 유기적인 생명체인 동시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K: 교회의 성격을 네 가지 비유로 표현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보면 교회는 '거룩하고' '공회'이며 '사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회의 표징으로서 잘 표현한 것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로 믿습니다.

L: 그 밖에도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겠지요. 말하자면 교회는 예배와 증언과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교회의 표징이나 기능도 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네 가지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K: 그런데 현실의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성도의 사귄사람이라든가 하는 점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국 교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데로만 기울어져서, 그 본질적인 면을 등한히 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봅니다. 교회라는 것을 다만 한 주일에 한 번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고 교회 일을 의논하고 헤어지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폐단이 있지요. 특히 교회가 이런 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사회 변천과 함께 그 의의를 재검토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교회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위안해 주고, 깨끗한 선남선녀들만이 모여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이며,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교회 생활의 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는 다만 인격 수양으로써 자기 노력으로 이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써 회개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L: 현대인에게 교회 생활이 소외되어져 가는 이유도 역시 교회 생활과 아울러 성령의 역사라는 면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K: 사실 그렇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의 사귄사람을 가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막연한, 마술적인 힘과 같은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다거나,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인 줄로 아는데, 나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평범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생활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생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보람을 느낀

3. 교회의 본질과 사명

다는 것은 꼭 주관적인 생각 같습니다만, 결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혼자서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람이라는 것이 성립되니까요.

L: 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써 낡은 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늘 보고 듣고 해서 별로 뜻을 깨닫지 못하던 일이나 사람에게서 갑자기 새삼스러움과 새로운 무엇을 느낀다는 것도 보람을 느낀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K: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활에서는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낙관주의적인 생활이라고 할까요?

L: 그럼 우리가 흔히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낙관주의자다 하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K: 역시 상식적으로 말하는 성격적인 낙관주의와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느끼는 낙관적인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허무, 대립, 충돌, 고통의 바다를 다 들여다 보고, 인간의 비극적인 바탕에서 구출을 당한 사람이 가지는 낙관주의가 바로 크리스천의 낙관주의가 아니겠어요? 절망 중에서도 바라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본회퍼가 말한 참된 크리스천의 낙관주의겠지요.

L: 낙관주의라는 말은 대단히 오해를 받기 쉬운 것이지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생활, 아무리 보아도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화평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K: 그것은 결코 현실을 초연하게 내려다 보면서 타계적인 것만 바라다 보고서 가지는 생활 태도가 아니라, 이 세상 안의 부조리와 허무, 불안, 고통 속에서도 곳곳하게 가지는 생활 태도라고 보는 것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L: 아마 교회의 본질과 성격을 말하는데 '관련해서' 차원히 크리스천의 생활 태도를 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진도가 가정 중심에서 직장 중심으로 옮겨져 간다는 외국의 소식이 들려 오는데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K: 교회와 가정 문제는 다른 기회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다만 가족 중심의 교회 생활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 제도와 윤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더 강렬한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교회 생활과 연결시켜서 더 고차적으로 양양함으로써 진정한 가정 생활을 기독교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L: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크리스찬 생활로 화제를 돌려 볼까 합니다.

□ 제 3 회 □

L: 교회 문제는 현대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검토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생명적인 유기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해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역시 크리스천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본 이해와 태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무교회주

3.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웨이커 운동 같은 때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교회를 부정하는 근본에는 역시 교회에 대한 근본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K: 아마 종래에는 신앙의 영역이 어디냐, 어떤 장소에서 신앙이 가능하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으레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려면 생활 환경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거의 무조건적 전제로 삼아 왔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교회 생활에 대한 생각을 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번에 신앙의 현실성과 힘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신앙의 힘과 권능은 신앙의 현실성, 실제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현실성은 결코 공간적으로 구역을 지어 놓은 범위 안에서 어떤 추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서 생겨지는 데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 지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일단 그 공간을 벗어나오면 그 신앙이 무력하거나 더러워진다는 생각은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을 공간화한다는 것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을 공간에다가 고착시킨다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줄곧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부정해 내려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절간이나 수도원처럼 수도장으로 오해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 드린다면, 신앙의 영역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L: 신앙의 영역이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 같습니다. 역시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이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문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박히었다”고 했습니다만(갈 6:14), 역시 이 세상과 신앙과는 대립되는 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따르는 생활 또는 이 세상을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운명적인 것을 긍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K: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시간이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즉 세상이라는 것을 한낱 공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의 양상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천이 이 세상이라는 말의 근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앙의 영역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하겠지요. 이 문제는 실약 시대로부터 줄곧 교회의 안팎에서 논쟁이 되어 오던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극도의 금욕주의자들의 수도 생활 같은 생활 태도도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나온 일들이지요.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죄사슬, 될 수 있으면 인간이 해방되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세상은 마귀와 악마가 주권을 잡고 활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릇된 체념이나 도피주의가 생겨진다고 봅니다.

L: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는 곳, 혹은 교회는 세상의 악마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생각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이 역사의 주요한 대행자가 교회이며, 교회의 사명을 이런 데서 찾는다는 것이 썩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

3.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겠읍니다. 빛이라는 것은 결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세속화’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말이 여러 가지 오해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 세상을 교회화한다는 것이 이 교회를 세속화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 면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에는 참으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책임과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 이 세상을 교회화하고, 이 교회를 세속화한다는 말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나, 이 세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 세상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잘못하면 질문 자체가 그릇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묻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탐구나 지성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상 대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신앙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은 이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어떤 장벽에 부딪치는 데서 신앙의 문제가 생겨 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데서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믿는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서 저절로 눈을 감게 되는데, 눈을 감았다고 신앙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눈을 감고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소망 없는 데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데서 신앙의 길이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L: 결국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결코 무시간적인 초월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겠읍니다. 순례자로서의 생활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신앙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만들지마는, 동시에 이 세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소망으로 사는 생활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